

신비롭고 현대적인 티베트 밀법, 보리선수 약사선원

10월 17일 오후 2시, 부산 벅스코 오디토리움 / 약사여래의 원력이 현전하는 놀라운 법석

“보리선수는 바쁘고, 스트레스 많고, 고통 받는 현대인들을 위해 진푸티상사께서 약사불 12대원과 티베트 수행법을 망라하여 집대성한, 쉽고 신비한 현대적 수행법을 전파하는 약사불 도량입니다. 바쁜 현대인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선정과 건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리선수는 건강과 즐거움의 길입니다.”

신비로운 티베트 설산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수행의 향기 가득한 법석, ‘약사여래불 가피 대법회’가 10월 17일 부산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티베트 밀법의 신비스런 수행과 선정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이번 법회는 보리선수 부산약사선원(주지 법생스님)이 주관하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불교TV,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부산지사, 법보신문, 불교신문 부산지사가 특별후원 한다.

보리선수 부산약사선원 주지 법생스님은 “한국에서의 8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불교도시 부산이 세계 영화의 메카, 국제해양도시, 국제물류도시 등 세계 속의 부산, 국제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런 추세를 잘 파악해 부산을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거점이자, 불교 국제화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전법하는 불제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후 “이번에 개최하는 법회는 신비롭고 현대적인 티베트 밀법이 체계화 된 한국 불자 대중들을 만나는 귀한 법석으로 현교와 밀법의 만남을 통해 부산불교가 더욱 성숙해지고, 이웃 종교를 섭수하여 불교 국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결실이 축출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법회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가 2,500년 동안 국경과 인종의 벽을 넘어 면면히 이어 온 것은 고통스런 현실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이고득락의 실용적 가치와 지혜의 안목 때문”이라며 “이번 법회는 티베트 밀법에 면면히 이어져 온 선정과 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법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첫째,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자리 없는 현대인들의 여유 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현대적 불법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둘째, 현대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약사여래의 원력이 현전하는 가피법회를 통해 선의 즐거움, 불법의 기쁨, 건강의 소중함을 즉각 체험하고 즉각 확인하는 귀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회 순서는 보리선수의 신비롭고 현대적인 수행법 전수를 시작으로 법문, 다라니 염송에 이어 법회의 주행사인 티베트 밀법의 놀라운 선정과 힘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 수행법으로는 관상과 함께 하는 ‘티베트 오체투지’ ‘다라니 염송’ 수인을 변화시키며 이끄는 말에 따라 관상하는 ‘대광명수지법’ 좌선의 상태에서 이끄는 말에 따라 관상하는 ‘보리정정관상법’, ‘감로이완법’ 원형으로 돌며 수련하는 ‘팔괘’ 흡사 기를 모으는 것 같은 모습의 ‘수정구’ 수행 등 인연에 따라 다양하게 시설되어 있다.

3년 전 보리선 수행을 만난 석범은 불자는 “깨달

세계 30개 지역 국경 초월한 보리선 수행 누구나 쉽게 배우고 깨치는 자비법문

체험할 수 있는 약사불 가피에 이어 참석 대중들의 길상여의를 축원하는 감로가피의 순으로 진행된다.

진푸티 상사의 전법제자 법생스님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30여 개 지역에서 법문을 펼치고 있는 국제기구인 ‘보리선수’는 기구의 명칭이자, 진푸티 상사가 창시한 현대적 불교 수행법들의 통칭이기도 하다.

보리선 수행법의 요체는 ‘자비’다. 스승의 자비 원력이 깃든 만트라(염불) 또는 현대적 명상음악의 인도에 따라 일종의 수인 동작과 관상법을 적절히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선정과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진푸티 상사가 고안한 모든 수행법들은 특별한 가피명상음악과 함께 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행시 사용되는 음악들은 신비롭고 우주적이며, 고타하며 깊은 이완을 유도하게 하는 강한 흡입력을

음을 얻기 위한 오랜 수행으로 심신의 병이 깊어졌다.”며 “약사불 다라니 수행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불법이 멀리 있지 않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보리선 수행자 자앤원씨는 “약사불 다라니 수행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좋았다. 종족이나 종교를 가리지 않고, 불자든 아니든 인연이 닿는 모든 이들이 약사불 다라니 가피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며 “약사불의 자비 에너지는 정말 한계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수행 중인 바바라씨는 “평생 편두통이 나를 괴롭혔는데, 머리가 아플 때마다 가피음악과 함께 오체투지를 계속했다. 지금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약사불 오체투지다라니 수행이 내겐 묘약이다.”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진푸티 상사의 전법제자 법생스님

법생스님은 진푸티 상사의 전법제자로 스승의 경지를 오롯이 전수 받고, 당장 아프고 고통 받는 이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불법 또한 쓸모없는 것이라며,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 대중들을 위해 혼신의 원력으로 불법 흥포에 매진하고 있다.

2005년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법문을 펼치기 시작하여 마침내, 2007년 온천동에서 선원을 개원했다. 참다운 수행에 목마른 한국 대중들에게 감로수가 되어 2010년 해운대 신도사로 확장 이전했고, 2013년 송정에 무문관 수련관을 추가로 개원하면서 국내에 보리선 수행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보리선수 약사선원은 부산본원 외에도 서울, 안산, 대구에 각각 지원을 두고 보리법문을 펼치고 있다.

☎ 051)702-7746
home-page: www.boriseon.com

나와 자비심이 하나 됨이 최상승의 불법

도움을 줄수록 즐거워 집니다.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습관처럼 남을 도와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돕겠다는 스트레스도 없고, 깨우쳐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바로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습관을 기르고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진푸티 상사

초기의 불법 사용단계는 바로 실용성입니다. 나는 이 인간세상에서 지옥을 쫓아버리고 극락세계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야만 참된 불법이고 깨달음이며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탈을, 지금의 육체가 죽은 후 다음 생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 배고파요” “그래 다음 생에 먹어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불법이란 반드시 현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금생에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즉신수행, 즉신성취, 각행원만”은 불법을 공부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참된 부분입니다.

어떤 이는 ‘생활해야 하는데 자비만 행할 수는 없잖아요’라고 합니다. 자비심이 있고 지혜와 법력이 생기면 생활이 어려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도시에서든 농촌에서든 모두가 앞다투어 집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고 길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입으려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 덕분에 부처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신은 아껴먹고 아껴쓰지만 참으로 자비롭고 길상한 사람을 공양합니다. 고생을 두려워하면 대자대비뿐만 아니라 자비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출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출근을 하고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자비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도움이 필요하며 동물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자비심과 하나 됨이 불법의 최고경지입니다. 자비를 떠난 불법은 없습니다. 인과성에 맞지 않는 불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각각각이 없으면 원만이 아닙니다.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면 부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제도의 길을 갈 때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돕는 습관이 길러지면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티베트 대성취자 진푸티 상사

진푸티 상사는 어려서부터 티베트 칭장고원의 설산에서 200여명의 많은 스승들로부터 각종의 수행법을 배우고 수련했다. 우주의 진리와 인생의 진면목을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른 진푸티 상사를 티베트 라마스님들은 환생한 부처로 인정하고 금불사로 모셔 가려고 했다. 그러나 진푸티 상사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 받는 중생들의 이고득락을 위해 하산을 결심하고, 자신이 닦은 고된 수행이 아닌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도 쉽게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현대적 불교 수행법인 ‘보리선 수행법’을 창시하고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대광명수지 수행을 하고 있는 미국 보리 선 수행자들의 모습



2009년 캐나다 밴쿠버 UBC대학에서 개최한 약사불 가피 법회

진푸티상사의 제자 법생스님

약사여래불 가피 대법회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가피,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체험하십시오.

10월 17일 (목) 오후 2시 벅스코 오디토리움

문의 051) 702-7746 中文 051) 701-5888

부산 약사선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88 울트라타워 15층

보리선수 약사선원 후원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불교TV BBS 부산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